

사랑중심적인 부부관계

원제: The dialectic of Marriage
「Psychology Today」1989년 10월호

박 경 석 요약 / 「사랑의전환」 상담실장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고, 또 누구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또한 사람들은 서로 정을 나누고 싶어하며, 동시에 성적인 관심과 쾌락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남녀가 결혼의 서약을 맹세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들이 결혼을 통하여 깊은 사랑의 결실을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 내면에 깊숙히 도사리고 있어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랑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를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된다. 즉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추구를 위협하는 사랑에 따르는 결합에 본능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들 두 상반된 대립은 우리를 어쩔 수 없는 고뇌 속으로 빠뜨린다.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사랑의 결합은 두려워하는 갈등.

현대를 사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특히 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중시하는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이들의 대립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남녀

의 구별없이 어디서나 똑같이 끝없는 경쟁심을 유발케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들에게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어야 하며, 또 어디에 우리의 사랑과 애정을 쏟아야 하는지 혼란케 만든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립 속에서 남편과 아내를 어디에 그들의 사랑을 쏟아야 하며, 또 어떻게 그들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의 대답은 이렇다. 지금까지의 자기중심적인 관계(self-centered)에서 벗어나, 서로의 관심사를 최고로 촉진케 하는 사랑중심적인(love-centered) 부분관계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부가 무엇보다 사랑 나누기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출 때, 다른 모든 것들 가령 일, 자식 키우기, 여가선용, 사회활동 등은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위하여 그 가능성을 최대로 발휘해야 하는 촉매제가 되어진다.

우리의 사랑중심적인 부부관은 여러 다양한 연구결과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 연구방법은 우리가 배워왔던 것을 답습하면서 또 변화를 주는 등의 변



증법적인 방식을 취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흔히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부부 관계의 질적 수준은 그들의 성장배경이나 성격에서 비롯된 상호 유사성이나 차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 사랑을 나눌 것이며, 또 어떻게 사랑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를 표출할 것인가에 대한, 상호 동의된 약속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었다. 즉 부부는 공동으로, 그리고 평등하게 정한 그들의 약속을 바로 지금, 그리고 여기(Now and Here)에서 벌어지는 직접적인 상호관계에 그대로 적용해야 하며, 만약 서로에게 더 좋은 무엇이 생긴다면 언제나 다시 새로운 약속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정신적 사랑과 육체적 사랑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사랑에는 4가지의 약속들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았다. 즉 ①한 사람이라는 개체로서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과, ②상호의존성을 증가시키기, 그리고 ③육체적 사랑의 쾌감에 대하여 상호 노력하기 또 ④남녀

라는 성별의 차이를 초월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들 약속들을 서로가 이행함으로써 부부는 즐거움 속에서 그들의 사랑을 펼치게 된다. 다소 낮긴지럽거나 또는 환상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부부의 사랑은 우리의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강력한 자극제인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각각의 약속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부부는 그들의 인생에 대하여 끊임없는 위협과 공포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즉 우리라는 공동의식에서 벗어나 나라는 개인으로 돌아오으로써 맛보아야 하는 허탈감과 소외감. 그래서 그들은 급기야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 나름의 거짓 은신처를 몰래 만든다.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방어기제가 그것이다. 즉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을 억압하거나, 왜곡, 또는 합리화시킨다. 그 결과 그들의 에너지는 이러한 방어기체에 모두 빼앗겨 버리고, 실제 필요한 그들의 사랑 나누기에는 여력이 없어 흐름이 끊기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중심적인 우리의 발견들은,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과 흥미를 개발시키는 것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그들의 독특한 결혼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려는 현대인들에게 유용한 돌파구를 마련해준다. 왜내하면 지금까지 남성이 우대받는 전통적인 결혼관계에서는 일방적인 여성의 희생만이 요구됨으로써 부부 간에 끝없는 갈등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사랑중심적인 부부관계는 이렇듯 평등적인 관계이다. 즉 남자이든 여자이든 똑같은 조건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사회적 통념이 만든 성역할(Sex role)에서 해방되어야 하며, 각자의 고유한 성(性)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많은 부부들은 실제로 불평등한 부부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질적인 그들의 사랑나누기에 보다 많은 정열을 쏟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아직까지 사회적 계급에 따른 기준, 가령 명성과 권력 그리고 재력 등으로 사랑을 측정하는 함정에 빠지곤 한다. 하지만 이제 사랑중심적인 부부관계를 실행에 옮길 때 이러한 함정

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사회구조가 만든 불평등한 관계를 대체 무엇 때문에 부부의 침실까지 가지고 오는가? 사회적인 성공이 부부간의 행복을 보장해준다고 당신은 아직까지도 믿고 있는가?

결혼생활의 6단계

제1단계-함께와 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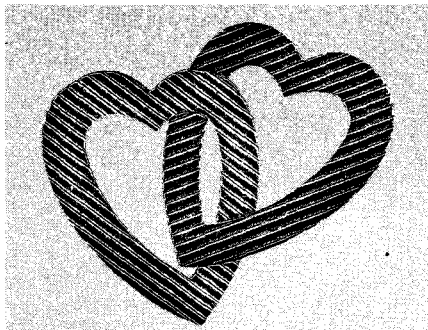
신혼부부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들의 사랑쌓기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해서는 함께가 요구된다. 즉 매일 밤의 사랑나누기, 가능한 많은 시간을 자유롭게 서로의 느낌을 나누는 것에 쏟기등, 그들은 이러한 함께 하는 나누기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통합을 얻는다. 특히 육체적으로 확인되는 함께의 과정은 하나라는 일체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몸과 마음의 함께는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또한 자극한다.

그리하여 웬지 모르게 여러 가지로 자신을 방어하는 홀로된 자신을 발견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그들의 직장 일에 더욱 집착하거나, 그들의 부모, 형제,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한다.

제2단계-출산과 소외

부부는 그들의 사랑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아이를 갖고자 한다. 여기에서 그들의 성별의 차이를 뚜렷하게 의식하게 된다. 이러한 의식은 성별차이에 대한 부러움과 열등감을 동시에 느끼도록 만든다. 남편은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로 소외감을 느끼고, 아내는 남편이 임신하



“ 실제로 부부의 사랑은 우리
의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
는 강력한 자극제인 것이다. ”

지 않았다는 사실로 소외감을 느낀다. 해결책은 남편과 아내가 출산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제3단계-양육과 포기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아이를 키우는 재미로 그들의 관계는 더욱 향상된다. 그래서 양육에 공동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가사를 서로 분담한다. 귀저기 채우기, 밥짓고 빨래하기 등의 일을 남녀가 나누어서 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는 각자의 성역할의 위협을 느끼면서, 차츰 태도가 바뀌간다. 즉 여자는 여자로서의 고유한 매력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며, 남자는 또한 남자로서의 고유한 특성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것이다.

이러한 공포는 그들의 침실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남자는 적극적으로, 그래서 남성의 힘찬 모습을 보이려 하고, 여자는 수동적으로, 그래서 여성의 다소곳한 모습을 보이려 한다. 그 결과 각자의 개인적인 골로에 초점을 맞추면서 함께의 사랑쌓기를 포기하기에 이른다.

제4단계-새롭게 만들기와 역할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부는 차츰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서로에게 돌려지면서 그들의 사랑에 위협을 느낀다. 그래서 서로에게 저항하는 것으로 관심을 표명한다. 공연히 짜증을

내고 심술을 부리기도 한다. 해결책은 그들이 느끼는 사랑에 대한 위협을 솔직하게 토론하는 것이다.

제5단계-변화와 후퇴

중년에 접어들면서 아이들은 결혼이나 직장등으로 하나 둘씩 집을 떠나게 된다. 이는 그동안의 가족관계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무언가 잃어버린 듯한 허전함과 결혼생활의 막바지에 이른 듯한 초조감이 한꺼번에 밀려든다. 또한 나이가 의식되고, 여자의 경우엔 폐경기를 겪으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두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바꾸는 호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임신에 대한 불안없이 사랑나누기에 정열을 쏟을 수 있으며, 이제는 두 사람만을 위한 사랑쌓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6단계-의존과 이탈

60에서 70대로 접어들면서 부부는 서로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가운데 관계는 더욱 깊어진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대부분이 상호의존적으로 되며 공동의 관심사가 점점 더 확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누가 먼저 죽게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으로 상호의존에서 이탈하려는 자세를 또한 보이게 된다.

이상의 6단계 과정을 볼 때 부부는 언제나 사랑에 대한 욕구와 또 한편의 사랑에 대한 두려움으로 갈등을 겪는다. 해결책은 부부관계에서 파생되는 이러한 갈등을 서로가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극복하려는 사랑 우선적인 마음가짐이 요구된다. †